



대국본 보도자료

주소: (0277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7가길 21, 301호 홍보실

담당: 홍보실 주영락 팀장 010-6326-0140 / 이경아 팀장 010-2870-1520

보도시각: 2025. 3. 13. 목 13:00

개인정보 역측에 대한 대국본 입장문

최근 대국본과 자유마을이 특정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일부 언론사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문의해 오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합니다.

대국본과 제휴한 관계사 중 일부는 처음에 마케팅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등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가 마케팅 관련 항목을 일괄 포함한 것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 조작’이라는 역측을 퍼뜨리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자 허위 선동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적이 없으며, 관련 활동을 진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드루킹 사건처럼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해왔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투영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운영과 관련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의향이 있지만, 탄핵 찬성 단체나 다른 시민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특정 단체만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시민단체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모든 시민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국본은 근거 없는 음해와 조작된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